**창0913 Note**

**◆도우미 : 할례의 참 뜻: 혈약과 그 혈약의 증거로서의 할례**

(혈약에 인치는 것으로서의 할례, 체결된 혈약의 증거로서의 할례)

사람들의 사회에서 국가간의 조약, 친구간의 약속, 연인간의 약속, 심지어 폭력단체의 내부결속을 위한 약속등의 각종의 단체간이나 개인간에 약속을 맺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나중에 다른 소리를 못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약속합니다. 회사에 입사해도,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제시하고,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과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 계약서 내용대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주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혈약을 맺어 약속을 하듯이, 하나님도 아주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 혈약을 맺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혈약을 맺으십니다.

창0909. 그리고 내가, 보라, 내가 내 혈약 (베리트:고기에서 유래,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감으로 맺는 언약, 계약: 창1510 참조)을 너희와①, 그리고 너희 뒤를 잇는 너희의 씨와②

창0910.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조류에서, 가축에서, 땅의 낱낱의 짐승에서, 방주에서 나가는 모두로부터 땅의 낱낱의 짐승에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 낱낱의 살아있는 생물과③ 공고히 하느니라 (쿰: 일어나다,성취하다,유지하다,다시 들어올리다,제정하다,실행하다,세우다,착수하다,공고히 하다,설립하다,확실히 하다,떠받치다,들어올리는,포고하다),

노아와 체결하신 혈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0911.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혈약을 공고히 할(쿰) 것이니, 모든 육신이 홍수의 물들에 의해 더 이상 잘려나가지도 않으며, 또한 땅을 무너뜨릴 홍수가 더 이상 있지도 않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혈약을 체결하셨다는 증거로서 계약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약서는 인간들과는 다른 방식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주십니다.

그 계약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창0912.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 있는 낱낱의 살아있는 생물 사이에서 영구한 세대 (도르:시간의 회전,시대,세대,거주,자손,항상)들을 위하여 내가 맺는 혈약의 표시 (오트:신호,깃발,횃불,기념비,전조,비범,증거,표시,기적,표)이니라,

창0913. 내가 구름 가운데에 나의 무지개를 두느니라, 그리고 그것은 나와 땅 사이의 혈약의 표시를 위한 것이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홍수로 다시 멸하시려고 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지개 계약서를 제시하여,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 있어도 홍수로는 우리를 다시 휩쓸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혈약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무엇으로 확실히 알 수 있겠느냐고 묻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과 혈약을 맺어, 그 약속에 인을 치십니다. .

창1507.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그것을 물려받게 하려고, 갈대아인들의 '우르'에서 너를 데려온 여호와니라,

창1508. 이에 그가 말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것을 물려받는 것을 내가 무엇에 의거하여 알리이까?

창1509.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삼년 된 젊은 암소[아갈라,에갈라: (암)송아지,특별히 갓 자라난 것, 아직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 송아지, 소, 암소] 하나와, 삼년 된 암염소 하나와, 삼년 된 숫양 하나와, 멧비둘기 (토르: 산비둘기,비둘기) 하나와 어린 비둘기 (고잘: 갓난 새끼,새끼 비둘기) 하나를 내게 취하라,

아브라함은 혈약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혈약을 맺으시려는 것을 즉시로 알아차리고,

혈약을 맺을 준비를 갖춥니다.

창1510. 이에 그가 그분께 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의 가운데를 자르고, 그리고 각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으니라, 그러나 새들은 그가 자르지 않으니라.

하나님께서 두 동강이로 나뉜 동물들의 시체들 사이로 지나가시며, 아브라함과 혈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창1517.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 해가 져서 때가 어두웠을 때에, 보라, 그들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는 연기나는 화로 (타누르:화로,난로,솥)와 불타는 횃불(라피드: 횃불,등불,불꽃,홰,번개,봉화)을,

창1518.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혈약 (베리트:고기에서 유래,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감으로 맺는 언약, 계약)을 맺으시니라 [카라트:자르다,베어내다,베어 조각내다,파괴하다,소멸시키다,동맹과 계약을 맺다, (원래는 고기를 베어 그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게 함으로서) 언약을 맺다, 서로 연맹하다, 베다, 베어 넘어뜨리다,맹약하다,세우다], 이르시되, 네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애굽의 강으로부터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었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혈약을 체결하셨다는 증거로서 계약서를 주십니다,

이 계약서는 할례의 계약서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혈약을 맺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인데, 그 계약서가 바로 할례입니다

창1709.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너는 곧, 너와, 그들의 대대(代代)들에서 네 뒤의 네 씨는 내 혈약 (베리트:고기에서 유래,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감으로 맺는 언약,계약)을 지킬지니라.

창1710. 이것이 나와, 너와 그리고 네 뒤의 네 씨의 사이에서, 너희가 지켜야 하는 내 혈약(내 혈약의 표시)이니 곧, 너희 중의 낱낱의 사내 아이는 할례를 받을지니라.

창1711. 그리고 너희는 너희 포피(包皮)의 살을 자를지니라, 그러면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혈약의 표시가 되느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혈약의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례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며, 눈에 보이는 계약서입니다.

우리는 이 계약서를 손에 들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혈약서 내용대로 이행해 주실 것을 주장하고 촉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혈약을 맺었다는 외적 증거에 불과합니다

Ω갈0502.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이를 말하노니 곧,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오펠레오: 유용하다,유익하게 하다,유익하다) 못하느니라,

갈0615.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도 무할례도 어떤 것에도 쓸모(이스퀴오:힘을 갖다,힘을 행사하다,할 수 있다,선하다,힘이 강하다)가 없음이니, 다만 새로운 피조물 (크티씨스:최초의 창조,행동,세우는 행위,물건,건물,창조,피조물,법령)이라.

이제 ‘할례의 혈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혈약서의 내용을 하나님께 주장하려면,

우리가 혈약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혈약서 안에는 우리가 이행하여야 할 우리의 책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행하여야 할 우리의 책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하실 일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렘3418. 그리고 내 혈약을 범해 왔던 사람들을①, 그들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부분들 사이로 지났을 때에, 그들이 내 앞에서 맺었던 [카라트:자르다,베어내다,베어 조각내다,동맹과 계약을 맺다,(원래는 고기를 베어 그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게 함으로서)언약을 맺다,서로 연맹하다,베다,베어 넘어뜨리다,맹약하다,세우다] 혈약의 말씀들을 이행해 오지 않았던 사람들을②,

할례의 의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